

# I. 概觀

## □ 산업 전망의 전제

- (전망의 전제조건)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며, 구조조정이 부분적이거나 완료되고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것임
  -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불안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 경제의 소폭 회복세로 세계 경제의 디플레 우려가 크지 않고, 엔저의 심화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도 낮기 때문임
  -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불철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며, 정부가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보다 좀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음

### <99年 國內 經濟 展望>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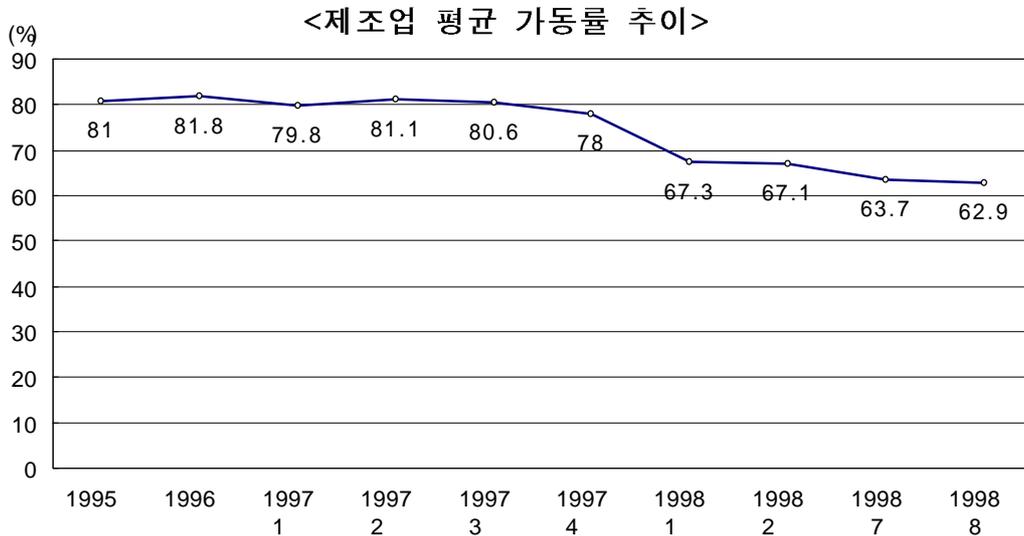
		1997(p)	1998(전망)		1999(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국내총생산	5.5	-6.8	-2.5	2.8	0.3
	총소비 민간소비	3.5 3.1	-12.6 -13.9	0.2 -0.4	1.8 1.5	1.0 0.5
계 정	총고정자본형성	-3.5	-31.7	1.5	3.5	2.5
	설비투자	-11.3	-45.8	-1.4	2.7	0.6
	건설투자	2.7	-22.0	2.9	3.9	3.4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86.2	364	84	45	129
	상품수지	-38.7	394	107	100	207
	서비스수지	-29.3	3	-9	-18	-27
	수출입차	-84	365	97	89	186
	수출(통관기준)	1,362	1,320	650	692	1,342
	(증가율, %)	(5.3)	(-3.1)	(-3.3)	(6.8)	(1.6)
	수입(통관기준)	1,446	955	553	603	1,156
(증가율, %)	(-3.8)	(-34.0)	(16.3)	(25.8)	(21.1)	
가 격 지 표	소비자물가(평균)	4.5	7.7	1.2	3.0	2.1
	회사채수익률(기말)	29.0	12.5	12.0	11.0	11.0
	원/달러환율(기말)	1,415.2	1,400	1,350	1,300	1,300
실업률(평균)		2.6	7.5	8.1	7.8	8.0

---

## □ 98년 상반기 산업 동향

- (극심한 내수 침체)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극심한 내수 침체가 계속되어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특히 자동차산업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급의 내수가 감소해 전년 대비 -50.1%의 극심한 내수 침체로 가동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고금리와 실업 급증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상업용 건축 및 주택 수요가 급감하여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도 -58.0%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음
  - 철강 역시 지난해말 이후 주요 수요 산업인 건설, 자동차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31.8%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기대 이하의 수출 부진) 내수를 대신하여 경기 회복의 돌파구 역할이 기대되던 수출 역시 기대 이하의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음
  - 철강(63.8%), 석유화학(55.9%)은 물량 기준 수출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밀어내기식 수출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금액 기준 증가율은 높지 않고 채산성 역시 크게 악화됨. 특히 철강은 무리한 밀어내기 수출로 미국 등으로부터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음
  - 공작기계(88.6%)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절대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반면 반도체(-1.4%), 자동차(-3.1%) 등 그 동안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요 업종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특히 자동차의 금액 기준 수출은 97년 상반기에 비해 19.1%나 줄어들었음
  - 다만 조선 수출이 50% 가까이 신장되는 호조를 보였음.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건조 물량이 29%나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톤당 단가가 높은 선박의 건조가 많았기 때문임
  
- (가동률 하락 지속) 이와 같은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하락함
  - 98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97년 상반기의 80% 수준에서 13%p나 하락한 67% 정도에 머물렀고, 7월에는 63.7%, 8월에는 62.9%로 가동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의 경우 98년 상반기 평균 가동율이 50% 이하였는데, 7, 8월에 들어서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철강업 가동률도 포항제철을 제외하고 전기로나 압연 업체들만 고려할 경우 60%대로 떨어졌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지속

- 반면, 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조선은 높은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 가동률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섬



## □ 98년 하반기 산업 전망

- (내수 침체 지속) 하반기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이 -14.2%로 감소율이 다소 낮아질 것이나, 이는 97년 하반기에 이미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은데 따른 것으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동차(-54.3%), 철강(-38.3%), 건설(-36.3%) 등 주요 업종의 극심한 내수 부진 현상은 반기에도 지속될 것임
- (수출 부진 지속) 반도체 수출이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뿐, 대부분의 업종에서 본격적인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상반기에 급증세를 나타냈던 석유화학과 철강은 동남아 시장 침체 지속(석유화학), 수입 규제(철강)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각각 19.7%와 16.6%로 둔화될 것임
  - 자동차 수출은 대우의 북미 진출과 업체들의 적극적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3.3%의 소폭 증가세로 반전, 연간으로는 9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반도체의 수출은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4.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선은 -2.8%의 감소세로 반전되겠지만, 이는 97년 하반기의 수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조선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 □ 99년 산업 전망

○ (내수) 구조조정 일단락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소폭이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됨

- 철강(6.4%), 자동차(17.9%) 등의 회복세가 기대되나, 98년의 극심한 내수 부진에 따른 지수상 반등의 의미가 강해 체감 경기의 극심한 부진은 지속될 것임
- 석유화학(-3.0%)은 98년 내수 부진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던 탓에 소폭 감소세가 지속
- 공작기계(-7.5%)는 투자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그나마도 신규 설비보다는 중고 및 유헴 설비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임
- 건설 수주(9.6%)는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공공 부문(12.0%)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것이나, 정부 정책이 신규 발주 증대보다는 기존 발주분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수출) 98년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경제 여건이나 산업 경쟁력의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98년 급증세를 보였던 석유화학(6.2%)과 철강(-5.1%)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임. 특히 철강은 반덤핑 규제의 가시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 자동차(4.2%)는 주요 업체의 북미 진출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지만 큰 폭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공작기계(15.0%)는 98년(75%)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나 호조세를 이어갈 것임
- 반도체(10.3%)는 가격 상승과 64M D램으로의 세대 교체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수출이 본격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조선(-3.0%)은 톤당 선가가 낮은 탱커의 건조 비중이 높아져 금액 기준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겠지만 전반적인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주는 대체 발주 물량 증가와 對日 가격 경쟁력 유지로 8.2%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생산) 전체적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98년의 극심한 생산 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강해 생산 위축 양상은 계속될 것임

- 철강(2.5%), 석유화학(2.1%)은 극히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데 그치고, 자동차(9.0%)는 지표상 다소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가동율이 50%대에 머무는 부진을 보일 것임
- 다만 조선(2.4%)은 98년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반도체(8.1%)는 하반기부터 본격적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산업의 1999년 전망>

		1998		1999	
철강	내수 (천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2%</li> <li>수요 산업 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4%</li> <li>수요 산업 다소 호전</li> </ul>
	수출 (천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2%</li> <li>가격 경쟁력 강화</li> <li>밀어내기 수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li> <li>세계 수요 정체</li> <li>통상 마찰</li> </ul>
석유화학	내수 (천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5%</li> <li>수요 산업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li> <li>수요 위축 지속</li> </ul>
	수출 (천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2%</li> <li>물량 위주 수출</li> <li>가격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2%</li> <li>동남아 시장 위축</li> </ul>
반도체	생산 (십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5%</li> <li>64M 생산비중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li> <li>생산 감축</li> </ul>
	수출 (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li> <li>수출 가격 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3%</li> <li>64M 세대 교체</li> </ul>
공작기계	수주 (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li> <li>국내 설비 투자의 급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5%</li> <li>신기계 수요 회복 불투명</li> </ul>
	수출 (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5.0%</li> <li>해외시장 여건 호전</li> <li>적극적 수출 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li> <li>수출 시장의 다변화 대응</li> </ul>
자동차	내수 (천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3%</li> <li>구매 심리 위축</li> <li>유가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9%</li> <li>세금 경감</li> <li>신모델 출시</li> </ul>
	수출 (천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2%</li> <li>개도권 시장 침체</li> <li>현대 파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li> <li>세계 경기 침체</li> <li>북미 진출 강화</li> </ul>
조선	수주 (만 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9%</li> <li>발주 물량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2%</li> <li>발주 물량 증가</li> <li>대일경쟁력 우위</li> </ul>
	수출 (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0%</li> <li>생산 설비 효율화</li> <li>노사 관계 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li> <li>물량 기준 증가</li> <li>저가선 건조</li> </ul>
국내건설	수주 (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6.8%</li> <li>수주 불황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li> <li>공공 수주 증가</li> <li>민간 수요 위축</li> </ul>

---

## II. 主要 産業別 展望

### 1. 鐵鋼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극심한 경기 침체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수출은 가동률 유지를 위한 업계의 수출 노력과 원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크게 증가
  - (내수) 건설, 자동차 등 주요 수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지난해말 이후 지속되면서 상반기 철강재 수요도 31.8% 급감
    - 설비 투자와 건설 수주가 50% 내외 감소하고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으며, 설비 투자 감소로 기계류 내수도 절반 이상 감소
  - (수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와 미국, 유럽, 중남미 등지로의 밀어내기 수출 증가로 64%정도 증가
    - 유럽 수출의 경우 물량기준 약 30배, 對미 수출은 140%나 증가
    - 이로 인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유럽국가들은 세이프가드를 요청했으며 미국도 관세류 등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 (생산) 내수 부진으로 철강재 생산은 전년 대비 6.3% 감소하고, 업계 가동률도 포철을 제외하면 64% 수준으로 하락
    -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후판 등도 설비 증강으로 공급 과잉으로 반전. 공급과잉인 냉연 관재류도 설비 증설이 계속되고 있어 공급 과잉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하반기 및 연간) 경기 침체 심화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 둔화
  -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설비 투자 감소세 지속으로 연간 35.2% 감소
    - SOC투자와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며 제조업설비 투자도 감소세 지속
  - (수출) 상반기에 활기를 띠었던 수출도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원화 가치의 상향 안정화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對日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대상국의 반덤핑 제소 및 수입 규제 움직임 강화
    - 수출 단가인하 요구와 동남아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채산성도 더욱 악화
  - (생산) 내수 부진 지속과 수출 둔화로 감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생산 위축이 더욱 심화되어, 연간 기준으로 전년비 14.8% 감소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 포철도 처음으로 감산(6.4%)을 추진중이며, 전기로 업체들도 감산에 돌입

□ 1999년 전망

- (내수) 철강 내수 경기는 98년 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내수 규모가 지난 1997년 수준에 30% 가량 밀도는 등 부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임
  - 경기 부양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99년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어 98년보다 6.4% 늘어난 2,631만톤으로 예상됨
  -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형강, 철근, 냉연강판 등의 수요도 증가
- (수출) 세계 수요 정체, 수출 경쟁 심화와 통상 마찰 등이 이어지고 원화 환율도 하락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5.1%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세계 수요는 98년과 비슷한 6억 7천만톤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 대상인 미국의 경제 전망이 회의적이고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비중은 20%, 동남아는 24%(98년 상반기, 물량 기준)
  - 환율 안정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로 저가 수출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임
  - 더구나 미국 철강업체가 핫코일, 강판 등을 덤핑혐의로 제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 對美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물론 99년 하반기에 신규 냉연 설비가 가동됨에 따른 수출 여력이 증대될 것이나, 세계 철강 경기가 둔화되고 생산 제품이 비교 우위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공급 능력 증강이 수출 확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생산) 수출 정체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업계의 신제품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2.5% 정도 늘어날 전망
  - 이는 설비 능력에 비하면 적정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로, 가동률 정체 및 업계 체산성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업계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임

<1999년 철강 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내 수 천 톤	38,145(1.5)	12,477(-31.8)	12,250(-38.3)	24,728(-35.2)	26,308(6.4)
수 출 천 톤	10,364(9.6)	8,580(63.8)	6,158(16.6)	14,738(42.2)	13,991(-5.1)
생 산 천 톤	44,733(5.6)	20,115(-6.3)	17,980(-22.7)	38,095(-14.8)	38,971(2.5)
수 입 천 톤	3,776(-19.0)	942(-50.4)	429(-77.1)	1,371(-63.7)	1,328(-3.1)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1) 98년 하반기, 연간, 99년은 본 연구원 전망치임

2)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수입은 핫코일 제외

(박 병 철)

---

## 2. 石油化學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 (상반기) 내수는 감소한 반면 생산 및 수출은 증가세를 보임

- (내수) 내수는 석유화학 수요 부문인 전기·전자, 자동차 및 생활용품 등 수요 부문의 위축으로 15% 감소세를 보임
  - 내수 위축은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1998년 상반기 수입 또한 전년동기대비 32.4% 감소했음
- (생산) 상반기에 완공된 생산설비의 가동이 시작되어 12.5%의 증가 추세를 보임
  - 국내 석유화학 수요 위축으로 인해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이 평균 80%에 불과했지만, 완공 설비의 추가 가동으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함
- (수출)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수출 총력 체제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실현함
  -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공급 과잉의 타개를 위해 수출을 강화함
  - 이로 인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의 상반기 수출량은 약 56%의 증가세를 보임

#### ○ (하반기 및 연간) 내수 부문의 하락율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수출은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내수) IMF 사태를 맞은 작년 하반기에 급속한 내수 침체로 인해 98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되어 1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 생산량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 하반기의 생산 급증으로 인해 생산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외적인 수요 부진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가격의 약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 (수출) 수출은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주력 시장인 동남아 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증가세가 약화되어 19.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동남아 시장의 침체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1999년 전망

○ (내수) 1999년에는 98년에 비해 내수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요 부분의 경기가 소폭 회복되는데 그쳐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98년에 비해 3.0%의 감소가 예상됨
- 1998년의 내수 위축이 심각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석유화학 제품 수입은 내수 침체가 지속됨에 감소폭은 축소되지만 여전히 1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됨

○ (수출) 상반기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약간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98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력시장인 동남아 지역 경제가 하반기 이후에나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 98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6.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상반기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주력 수출 시장인 동남아 시장이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수출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생산)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해 98년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됨

- 일정 비율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98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999년 석유화학 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내 수	천 톤	8,902(11.2)	3,836(-14.9)	3,770(-14.2)	7,606(-14.5)	7,377(-3.0)
수 출	천 톤	4,887(36.5)	3,258(55.9)	3,350(19.7)	6,608(35.2)	7,019(6.2)
생 산	천 톤	12,491(21.4)	6,608(12.5)	6,650(0.5)	13,258(6.1)	13,536(2.1)
수 입	천 톤	1,298(0.1)	486(-32.4)	470(-18.9)	956(-26.3)	860(-10.0)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 1) 1998년 하반기 및 연간, 1999년은 전망치임

2)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3대 유도품 기준

(신 광 철)

---

### 3. 半導體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부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4%의 감소세를 나타냈음

- 1/4분기에는 수출이 12.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4분기에 -12.8%를 기록하여 감소로 돌아섬
  - 1/4분기중 수출 증가는 D램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D램 공급업체들이 16M D램의 생산량을 줄이고 64M D램의 생산량을 늘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불안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3월부터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2/4분기 내내 하락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출액은 가속적으로 감소됨(6월 -27.8%)
  - 이러한 감소세는 7월 -17.6%, 8월 -11.9%로 이어져 비록 둔화되기는 하지만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
- 6월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가격하락에 감산이 겹쳤기 때문임
  - 5월까지의 수출 금액은 감소하였지만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국내업체들이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감산을 실시하면서 6월 이후에는 수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하반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출액의 등락 현상은 계속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임

- 이미 가격이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이므로 하반기에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물가격은 8월부터 일시적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음
  - 고정거래가격까지 안정으로 돌아서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월부터는 수출이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향후 가격은 소폭의 부침을 거듭하면서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출도 부침을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64M D램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4M D램의 생산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임

## □ 1999년 전망

- (수출) 1999년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1999년 수출액은 10.3%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1999년 초까지 가격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임
    - 비록 아직까지는 설비과잉 상태이나 D램 업체들의 퇴출과 사업 축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수요가 64M D램으로 이전되고 있어 99년 중반 이전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 가격이 안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64M D램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물량 및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 따라서 수출액이 99년 상반기에는 소폭으로, 하반기에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시장의 D램 수요 전체의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가격의 회복과 64M D램으로의 세대교체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임
    - 아시아 경제의 위축 등으로 PC 수요의 전망이 밝지 않지만 D램 시장의 경기변동은 전체 수요의 변화보다는 공급측의 투자 러시와 설비 조정의 반복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전체적인 수요 위축이 D램 경기의 국면전환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임
- (생산과 수입) 한편 생산은 감산의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8.1%정도 증가에 그칠 것이며, 수입은 내수 침체로 감소세가 심화되어 -8.6% 정도를 기록할 것임

### <1999년 반도체 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생 산	십억원	18,923(18.0)	12,013(40.1)	9,077(-12.3)	21,090(11.5)	22,798( 8.1)
수 출	백만원	17,424(-2.3)	8,002(-1.4)	9,719( 4.5)	17,721( 1.7)	19,546(10.3)
수 입	백만불	12,888(22.2)	5,852(-4.9)	6,316(-6.2)	12,169(-5.6)	11,122(-8.6)

자료: 무역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 1) 98년 하반기 및 연간은 추정치, 99년은 전망치임

2)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김 창 욱)

---

## 4. 工作機械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97년 4/4분기 이래의 불황에 따른 설비 투자의 급속한 위축으로 내수는 급속히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도 대폭 축소되었음. 수출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생산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음
  - (수주) 국내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반기 전체 수주가 전년보다 24.9% 감소
    - 국내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4.7%의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설비 투자의 급격한 감소(-46.7%)에 기인함
    - 해외 수요가 대폭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체 수주액은 감소로 나타났음
  - (생산) 수주 감소·재고 누적으로 상반기 생산은 -20%의 감소세를 보였음
    - 생산 감소는 재고 누증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20여 개에 달하는 내수 지향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 데에도 기인함
  - (수출) 전년 동기 대비 88.6%에 달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 이것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과 함께, 호황 지역인 구미 지역에 대한 국내 수출 대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촉진 정책에 따른 것임
  - (수입) 수출과 반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공작기계 부문에서 사상 최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음
- (하반기 및 연간)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 수주와 생산은 각각 -20.0%, -28.6%, 수출과 수입은 75% 상승 -59.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주) 하반기에도 해외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위축으로 수주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임
  - (생산) 하반기 생산여건은 수주여건보다 더욱 악화되어 -25% 하락세가 전망됨
    -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퇴출되는 내수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대기업들도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수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와 같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환율 조건, 해외 시장 여건은 물론 국내 대기업의 의욕적인 수출 전략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수입) 내수 위축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임

## □ 1999년 전망

- (수주) 본 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99년도 설비투자는 98년도에 비해 0.6%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국내 공작기계 수요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에 따른 유희 설비 규모의 확대로, 신기계 수요보다는 재고 및 중고 기계 수요 중심으로 국내 수주가 일어날 것임
  - 해외 수주 역시 98년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수출) 일본 경기 침체와 미국 시장의 불투명으로 수출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경기 위축에 따른 일본 업체의 수출 확대 여력 증가로 국내 업체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수출 시장의 위축이 예상됨
- (생산) 생산 감소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재고 조정, 유희설비의 확대, 공작기계 생산업체의 구조 조정 등으로 생산은 10.8% 줄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수입) 내수 시장 침체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99년 하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조치 해제로 일본 업체의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어 98년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어 -5.0%를 기록할 전망이다

<1999년 공작기계 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수주	억 원	8,767(-15.4)	3,513(-24.8)	3,501(-14.6)	7,014(-20.0)	6,488(-7.5)
수출	백만 달러	395(-23.0)	303(88.6)	388(65.8)	691(75.0)	795(15.0)
생산	억 원	9,522(-14.2)	3,368(-19.9)	3,430(-24.9)	6,798(-28.6)	6,064(-10.8)
수입	백만 달러	1,205(-32.9)	250(-63.0)	240(-54.6)	490(-59.3)	467(-5.0)

자료: 통계청, 「기계수주통계」(수주), 한국공작기계협회, 「통계속보」(생산), KOTIS LINE(수출입: MTI 기준)

주: 1) 98년 하반기, 연간, 99년은 본 연구원 전망치임  
 2)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류 제 현)

---

## 5. 自動車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는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수출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내수) 경기침체 및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 금리 상승, 유가 인상 등으로 극도의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업체별로는 대우중공업을 제외한 전업체가 전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판매실적을 기록
    - 승용차 차급별로는 경차를 제외한 전 차급이 대폭 감소
  - (수출) 상반기 수출은 수출 금융 경색, 해외 현지 제고조절, 동남아시아 침체, 중남미·동구 등 개도권 지역의 경제 불안, 일부 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동기비 3.1% 감소하는 부진한 양상을 보임
    - 업체별로는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만 전년동기비 증가, 나머지 업체는 모두 감소
    - 경차 수출 비중 증대와 승용차 수출 부진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으로 금액 기준 수출은 19.1%나 감소하였음
  - (생산) 상반기에는 일부 업체들의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 위축, 수출 부진 및 이에 따른 제고 조절, 일부 업체의 대규모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기비 35.0% 감소
    - 업체별로는 경차 위주의 대우중공업만 증가했을뿐, 나머지 업체는 내수 부진으로 모두 전년비 대폭 감소
- (하반기 및 연간) 하반기에도 내수 침체는 계속되지만, 수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내수)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지속, 실업 증가, 유가 추가 인상의 여파 등으로 전년동기비 54.3% 감소하여, 98년 연간으로는 전년비 52.3% 감소한 72만대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수출) 하반기에는 대우의 북미 진출, 현대자동차 파업 해소, 신모델 수출 본격화 등으로 다소 회복되어 전년동기비 3.3%의 소폭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98년 연간으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132만대로 전망됨
  - (생산) 하반기에는 전년동기의 생산 격감에 대한 기술적 반동이 있고, 현대가 파업기간의 생산 차질 물량 복구에 진력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비 24.1% 감소한 106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 연간으로는 전년비 27.6% 감소한 204만대에 그쳐 93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됨

## □ 1999년 전망

### ○ (내수) 99년 내수는 금년비 17.9% 증가한 85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 99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가시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할부 판매 활성화, 자동차 관련 세금 경감, 미니밴 등 신모델 출시, 트럭 수요 증가 등으로 내수 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실업률과 소득 감소로 인한 구매 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유가 인상 여파, 경차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수출) 자동차 수출은 금년비 4.2% 소폭 증가한 138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99년에는 개도권 지역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데다 선진국 시장의 판매 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원화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은 소폭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긍정적 요인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신모델 투입 및 해외 판매망 강화, 대우의 북미시장 판매 본격화 등을 들 수 있음

### ○ (생산) 자동차 생산은 금년비 9.0% 증가한 223만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내수 및 수출이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신모델 생산이 본격화되는 등에 따라 생산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기아 처리의 향방, 지속적인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999년 자동차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내 수	천 대	1,513(-8.0)	361(-50.1)	360(-54.3)	721(-52.3)	850(17.9)
수 출	천 대	1,317(8.8)	619(-3.1)	701(3.3)	1,320(0.2)	1,375(4.2)
생 산	천 대	2,818(0.2)	923(-35.0)	1,061(-24.1)	2,041(-27.6)	2,225(9.0)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1) 98년 하반기 및 연간, 99년은 전망치임

2)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진우)

---

## 6. 造船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 (상반기) 신조선 수주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수출과 생산은 대폭 증가

- (수주) 세계 전체의 발주 물량 감소로 선박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4.6% 정도 감소한 454만 GT에 그침
  - 97년 대량 발주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와 아시아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선주들이 신규 발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IMF 체제로 인한 신인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원화의 대폭 절상에 의한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큰 차질없이 수주가 이루어졌음
- (수출) 수출은 무려 47.7% 증가한 37.7억 달러를 기록
  - 이는 건조 물량이 97년 상반기 대비 29.0%나 증가했고, GT당 선가가 높은 선박들이 많이 건조되었기 때문임

#### ○ (하반기 및 연간) 하반기 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생산은 증가세가 대폭 둔화

- (수주) 하반기에도 수주 감소세가 지속됨으로써 98년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970만 GT 내외로 예상
  -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계 발주 물량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임
  - 국내 금융 기관의 대외 신용도가 여전히 낮아 BBC 금융(선박취득 조건부 나용선) 등을 통한 LNG선 등 내수용 선박의 발주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수출) 비록 하반기에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지만, 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증가한 76억 달러로 전망됨
  - 하반기 이후 GT당 단가가 낮은 탱커(유조선)의 인도가 많아짐으로써 금액 기준 증가 폭이 많이 둔화됨
  - 그러나 연간 수출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생산) 생산 증가세가 하반기에 약간 둔화되지만, 연간 기준으로 14.1% 정도 증가한 850만 GT에 이를 전망임
  - 하반기 생산 증가세의 둔화는 선박 인도 스케줄에 따른 것임
  - 연간 건조 물량의 증가는 2년 치 이상의 안정적인 조업 물량 확보, 생산 설비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가동률 상승 등에 기인함

□ 1999년 전망

○ (수주) 탱커의 대체 수요를 중심으로 한 세계 발주 물량 증가와 국내 조선 업체의 신인도 제고로 약간 증가할 전망

- 수주는 98년보다 8.2% 정도 증가한 1,05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99년부터 선령이 25년 이상된 VLCC(대형유조선)의 대체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전체의 선박 발주 물량이 98년보다 조금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 또, 90년대 이후 선박 건조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조선 업체들의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음
- 본 연구원의 99년 환율 전망에 따르면 원/100엔 환율이 950원 이상을 유지해 우리 조선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어느 정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주요 해운선사들이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주 물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VLCC를 중심으로 시리즈선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여 연속선 건조를 통한 도크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함

○ (수출) 탱커 건조 비중 증대로 감소 예상

- 선박 수출은 98년보다 3% 정도 감소한 74억 달러로 예상됨
- 99년에는 톤당 선가가 낮은 탱커의 인도 비중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건조 물량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간 감소할 전망

○ (생산) 생산성 향상으로 약간 증가할 전망

-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70만 GT 내외로 전망
- 법정관리중인 한라중공업의 정상 가동과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으로 생산은 최대 건조 능력에 거의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

<1999년 조선 산업 전망>

	1997	1998			1999(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수 주 만 GT	1,275(82.8)	454(-24.7)	516(-23.2)	970(-23.9)	1,050(8.2)
수 출 억 달러	65.2(-8.5)	37.7(47.7)	38.6(-2.8)	76.3(17.0)	74.0(-3.0)
생 산 만 GT	745(-4.5)	420(29.0)	430(2.3)	850(14.1)	870(2.4)

자료: 조선공업협회, 무역협회(수출)

주: 1) 98년 하반기 및 연간, 99년은 본 연구원 전망치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 희 식)

---

## 7. 建設 産業

### □ 1998년 동향 및 전망

- (상반기) IMF로 인한 공공 부문 투자 제약 속에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투명으로 국내 건설의 민간 수주가 급격히 감소
  - (공공 수주) IMF로 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공공 발주 부진이 지속되어 공공 발주 물량이 7.5% 감소함
    - 기존 추진 사업의 재검토 등 사업 추진 효율성의 점검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신규 발주가 부진함
  - (민간 수주) 고금리, 수요 위축,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용 건축물 수요 위축 및 주택 수요 부진으로 민간 부문의 수주는 무려 58%나 감소
    - 사무실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가 상반기중 주택 가격이 11.7%나 하락하였음
  
- (하반기 및 연간) 공공 부문 수주 규모가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으로 소폭 늘어나고, 민간 수주도 주택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어 전체 수주는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에 그칠 것임
  - (공공 수주) 하반기 공공 수주의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이지만, 97년 하반기 발주 물량이 많았던 탓으로 수주 감소율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커져 -20.1%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1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집행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발주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민간 수주) 하반기 민간 수주는 상반기 -58%보다는 둔화된 -49.5%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는 -54.2%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저망됨
    - 구조 조정과 자산디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한 내수 부문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수주 불황은 지속됨
    - 다만,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택 부문의 분양이 다소 회복되어 민간 수주 감소 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1999년 전망

- (국내 건설 수주) 1999년 국내 건설 수주는 IMF 첫해인 98년보다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9.6%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공공 수주) IMF로 인해 급격히 수주가 떨어진 98년보다 수주 증가율이 높아져 12% 정도 상승할 전망
  -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이 98년 예산보다 5% 정도 증가
    - 또한, 적자 재정의 편성으로 99년도에는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건축 사업은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민간 수주) 수요 위축, 기업 부도 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용 건축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나 주택 부문의 활기로 5.8% 정도의 소폭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
  - 기업 구조 조정과 부도의 여파로 신규 설비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민간의 상업용 건축과 토목은 부진을 지속
  - 하지만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돼 민간 주택 건축이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하여, 전체 민간 수주는 5.8%의 소폭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999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내(조 원)	민간	44.3(7.5)	10.3(-58)	10(-49.5)	20.3(-54.2)	21.5(5.8)
	건축	37.9(1.6)	9.1(-56.2)	9.5(-46.2)	18.3(-51.7)	19.6(7.1)
	토목	6.5(62.5)	1.23(-67.4)	0.8(-70)	2.03(-68.8)	1.9(-6.4)
	공공	35.4(8.9)	13.7(-7.5)	16.3(-20.1)	30(-15.3)	33.6(12.0)
	건축	8.1(5.2)	2.6(-10.1)	4(-23.1)	6.6(-18.5)	7.2(9.3)
	토목	27.3(9.6)	11.1(-6.9)	12.3(-19.6)	23.4(-14.3)	26.4(12.9)
합계	79.7(8.1)	24.05(-39)	26.3(-36.3)	50.4(-36.8)	55.2(9.6)	

자료: 대한건설협회 실적치

주: 1) 1998년 하반기 및 연간, 1999년은 전망치임

2)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률(%)임

(김 선 덕)

**<1999년도 주요 산업별 전망>**

		1997	1998(e)	1999(e)	
철 강	내 수(천 톤)	38,145(1.5)	24,728(-35.2)	26,308(6.4)	
	수 출(천 톤)	10,364(9.6)	14,738(42.2)	13,991(-5.1)	
	생 산(천 톤)	44,733(5.6)	38,095(-14.8)	38,971(2.5)	
	수 입(천 톤)	3,776(-19.0)	1,371(-63.7)	1,519(10.8)	
석유화학	내 수(천 톤)	8,902(11.2)	7,606(-14.5)	7,377(-3.0)	
	수 출(천 톤)	4,887(36.5)	6,608(35.2)	7,019(6.2)	
	생 산(천 톤)	12,491(21.4)	13,258(6.1)	13,536(2.1)	
	수 입(천 톤)	1,298(0.1)	956(-26.3)	860(-10.0)	
반 도 체	생 산(십억 원)	18,923(18.0)	21,090(11.5)	22,798( 8.1)	
	수 출(백만 불)	17,424(-2.3)	17,721( 1.7)	19,546(10.3)	
	수 입(백만 불)	12,888(22.2)	12,169(-5.6)	11,122(-8.6)	
공작기계	수 주(억 원)	8,767(-15.4)	7,014(-20.0)	6,488(-7.5)	
	수출(백만 달러)	395(-23.0)	691(75.0)	795(15.0)	
	생 산(억 원)	9,522(-14.2)	6,798(-28.6)	6,064(-10.8)	
	수 입(백만달러)	1,205(-32.9)	490(-59.3)	467(-5.0)	
자 동 차	내 수(천 대)	1,513(-8.0)	721(-52.3)	850(17.9)	
	수 출(천 대)	1,317(8.8)	1,320(0.2)	1,375(4.2)	
	생 산(천 대)	2,818(0.2)	2,041(-27.6)	2,225(9.0)	
조 선	수 주(만 GT)	1,275(82.8)	970(-23.9)	1,050(8.2)	
	수 출(억 달러)	65.2(-8.5)	76.3(17.0)	74.0(-3.0)	
	생 산(만 GT)	745(-4.5)	850(14.1)	870(2.4)	
국내건설	민간(조 원)	44.3(7.5)	20.3(-54.2)	21.5(5.8)	
	건축		37.9(1.6)	18.3(-51.7)	19.6(7.1)
		토목	6.5(62.5)	2.03(-68.8)	1.9(-6.4)
	공공(조 원)	35.4(8.9)	30(-15.3)	33.6(12.0)	
	건축		8.1(5.2)	6.6(-18.5)	7.2(9.3)
		토목	27.3(9.6)	23.4(-14.3)	26.4(12.9)
	합계(조 원)	79.7(8.1)	50.4(-36.8)	55.2(9.6)	

자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무역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조선공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주: 1) 1998년, 1999년은 전망치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 Ⅲ. 示唆點

#### □ 積極적인 내수 부양 정책의 필요성

##### ○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내수 침체는 지속될 전망

- 주요 산업의 99년 내수 전망을 보면, 98년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99년에도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이러한 소폭의 경기 회복도 대외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9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임

##### ○ 본격적인 수출 확대 기대 곤란

- 99년에는 동남아 등 개도국의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둔화마저 예상되어 대외 경제 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98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주요 산업의 회생을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 철강 등 급격한 수출 확대를 도모했던 업종들에서는 제품 가격 급락, 수입 규제 움직임 가시화 등 밀어내기식 수출에 따른 부작용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
- 무역금융 경색 해소 등 수출 증대를 억압하는 요인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을 정상 궤도로 진입시킬 수는 있어도 대폭적 수출 확대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 積極적인 내수 진작 시책의 필요성

- 수출 확대에 지나친 기대를 걸고 내수 진작을 등한시할 경우 주요 산업의 경쟁력 기반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어느 정도의 내수 기반을 되살리게 되면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일조하여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내수 진작과 중장기적 과제인 지속적 구조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립시켜 나가느냐가 99년에도 최대의 경제정책 이슈가 될 것임

---

## □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충 방안의 필요성

- 원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수출 부진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99년에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은 매우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데 그칠 것임
  - 이는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의 취약성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 이미 IMF 체제가 시작되기 이전인 90년대 중반부터 수출 증가율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현재 진행중인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구조조정 이후 단계에서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산업경쟁력 확충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조정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연구개발투자 확대
    - IMF체제를 맞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와 연구인력이 모두 급속하게 감축되고 있음. 특히 세수 확보라는 명분으로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시책이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시책과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보화 투자 확대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산업, 기업의 각 차원에서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유희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실업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산업내 고부가가치화
    - 신규 유망산업의 발굴·육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움
    - 따라서 디자인 능력 제고, 생산공정 효율 개선 등 산업의 지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주력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 參 考 >

### 1. 副次的 시나리오에 따른 産業 展望

#### □ 비관적 시나리오

-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시화로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며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 (실물부문) 장기 불황 국면 진입, 연간 -2.7% 성장
  -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하락 및 달러화 공급 감소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신용 경색 지속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
  
- 현 시점에서 판단하여 볼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20% 정도임
  - 세계적 차원의 디플레 확산을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공조 노력이 예견됨
  - 구조조정의 완결을 촉구하는 대내외적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거나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1999년 국내 경제 전망(비관적 시나리오)>

(단위 : 억 달러, %)

		1997(p)	1998(전망)	1999(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5.5	-6.8	-2.5	-2.9	-2.7
	민간소비	3.1	-12.6	-1.8	-2.9	-2.4
	설비투자	-11.3	-45.8	-2.0	-5.9	-3.9
대외거래	경상수지	-86.2	364	81	38	119
	수출(통관기준)	1,362	1,320	637	639	1,276
	(증가율, %)	(5.3)	(-3.1)	(-5.2)	(-0.7)	(-0.3)
	수입(통관기준)	1,446	955	543	574	1,117
(증가율, %)	(-3.8)	(-34.0)	(14.2)	(17.4)	(15.8)	
가격지표	소비자물가(평균)	4.5	7.7	1.5	4.5	3.0
	회사채수익률(기말)	29.0	12.5	13.5	15.0	15.0
	원/달러환율(기말)	1,415.2	1,400	1,450	1,550	1,550
실업률(평균)		2.6	7.5	8.3	9.2	8.8

---

## □ 주요 산업별 전망

- **철강** : 국내 수요의 부진이 지속됨은 물론, 세계 철강 수요의 감소 및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폭도 커질 전망이다
  - (내수)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른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생산 정체 지속과 기업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세계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엔화 및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이나 유럽등에 대한 철강재 수출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한편 수입 규제도 강화될 경우 수출은 8% 가까이 감소
  - (생산) 전반적 수요 축소로 철강재 생산량도 2.4%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규모가 설비 능력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가동률 하락 현상이 심화
  
- **석유화학** : 내수 감소폭이 커지고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생산은 98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 (내수)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요 부문의 침체가 심화돼 7.0%의 감소가 예상됨
  - (수출) 석유화학 제품의 주력 수출 시장인 동남아 시장이 침체가 확대될 경우에 증가율이 4% 정도에 머무를 전망
  - (생산)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심화되어도 98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수요 부진은 수출 단가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반도체** :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된다면 D램 경기의 회복이 1999년 연말 이후로 늦춰질 수 있음
  - (세계 수요)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은 PC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PC 1대당 메모리 용량의 증가를 억제할 것임
    - 이는 16M D램에서 64M D램으로의 세대교체를 지체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D램 경기의 회복은 99년 연말 이후로 늦춰질 것임
  - (수출) 회복이 늦춰진다고 해도 수출은 98년보다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임
    - 현 국면은 설비 축소가 진행중인 조정기이므로 회복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급속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임
    -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수출 증가율은 6.5%에 그치고 수입은 -12.5%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공작기계 : 설비 투자 감소세가 이어져 내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수출마저도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수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99년도 설비투자가 -3.9%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내수 위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임. 따라서 수주는 -1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 수주 감소세로 생산 업체의 부도 증가세 지속, 유휴 설비 누증으로 생산은 -15.8% 감소할 것임
- (수출) 세계 경기 침체로 주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마저 위축되면,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수준에 그칠 전망
- (수입)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어 수입 시장의 위축도 당분간 계속될 것임

○ 자동차 : 내수는 장기 불황 국면 진입에 따라 전년비 6.8% 증가에 그치며, 수출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엔화 가치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3.0% 감소

- (내수) 장기 불황 국면 진입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 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나, 전년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자동차 관련 세금 경감, 신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6.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세계 경제 성장률의 대폭 둔화, 엔화 가치 급락, 위안화 평가 절하 등으로 개도권 지역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선진국 시장의 판매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 대우의 북미 진출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선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발주 물량 감소로 수주량 소폭 감소 전망

- (수주) 98년보다 2.1% 정도 감소한 95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교역량 증가폭이 작아져 해상 물동량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짐
  - 이는 선주 및 해운선사들이 노후 선박의 대체나 신규 선박의 발주를 자제하도록 만들어 전체 발주 물량을 축소시킴
- (생산 및 수출) 미리 수주를 받은 물량을 건조하는 것이므로 외부적인 경제 상황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 :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내 수주 증가율은 1.7%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 (공공 수주) 정부가 비록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신규 사업의 발주보다는 기존 투자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 발주가 급감하는 경우 5.6%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민간 수주) 98년의 민간 설비 투자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향세가 지속되어 민간 상업용 건축과 주택 수요가 98년보다 더욱 축소될 경우 민간 수주는 -4.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1999년도 주요 산업별 전망(비관적 시나리오)>

		1997	1998(e)	1999(e)
철 강	내 수(천 톤)	38,145(1.5)	24,728(-35.2)	24,360(-1.5)
	수 출(천 톤)	10,364(9.6)	14,738(42.2)	13,569(-7.9)
	생 산(천 톤)	44,733(5.6)	38,095(-14.8)	37,180(-2.4)
	수 입(천 톤)	3,776(-19.0)	1,371(-63.7)	749(-45.3)
석유화학	내 수(천 톤)	8,902(11.2)	7,606(-14.5)	7,074(-7.0)
	수 출(천 톤)	4,887(36.5)	6,608(35.2)	6,872(4.0)
	생 산(천 톤)	12,491(21.4)	13,258(6.1)	13,138(-0.1)
	수 입(천 톤)	1,298(0.1)	956(-26.3)	808(-16.0)
반 도 체	생 산(십억 원)	18,923(18.0)	21,090(11.5)	22,039(4.5)
	수 출(백만 불)	17,424(-2.3)	17,721( 1.7)	18,873(6.5)
	수 입(백만 불)	12,888(22.2)	12,169(-5.6)	10,648(-12.5)
공작기계	수 주(억 원)	8,767(-15.4)	7,014(-20.0)	6,137(-12.5)
	수 출(백만 달러)	395(-23.0)	691(75.0)	712(3.0)
	생 산(억 원)	9,522(-14.2)	6,798(-28.6)	5,724(-15.8)
	수 입(백만달러)	1,205(-32.9)	490(-59.3)	451(-8.0)
자 동 차	내 수(천 대)	1,513(-8.0)	721(-52.3)	770(6.8)
	수 출(천 대)	1,317(8.8)	1,320(0.2)	1,280(-3.0)
	생 산(천 대)	2,818(0.2)	2,041(-27.6)	2,050(0.4)
조 선	수 주(만 GT)	1,275(82.8)	970(-23.9)	950(-2.1)
	수 출(억 달러)	65.2(-8.5)	76.3(17.0)	74.0(-3.0)
	생 산(만 GT)	745(-4.5)	850(14.1)	870(2.4)
국내건설	민간(조 원)	44.3(7.5)	20.3(-54.2)	19.4(-4.4)
	건축	37.9(1.6)	18.3(-51.7)	17.7(-3.2)
	토목	6.5(62.5)	2.03(-68.8)	1.7(-16.3)
	공공(조 원)	35.4(8.9)	30(-15.3)	31.7(5.6)
	건축	8.1(5.2)	6.6(-18.5)	6.7(1.3)
	토목	27.3(9.6)	23.4(-14.3)	25.0(6.9)
	합계(조 원)	79.7(8.1)	50.4(-36.8)	51.3(1.7)

---

## 2. 円高의 産業別 波及 效果

### □ 개관

#### ○ 전제

- 엔/달러 환율이 115~120엔/달러 선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는 반면,
- 원/달러 환율은 99년 연평균으로 1350원/달러 선에서 안정세 유지

#### ○ 파급 효과

- (수출) 철강,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등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종에서 수출 및 수주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과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크게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수입 및 비용) 공작기계나 반도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품이나 장비의 對日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지 않아 엔고에 따른 수입액 및 원가 상승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한·일간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 하지만 엔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본내에서도 이미 수익성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반도체, 철강 등의 업종에서 과잉 설비의 감축이나 일부 업체의 퇴출이 초래될 수도 있음
  -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세계 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국내 업체의 시장 주도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작기계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부터의 부품 조달이나 對韓 직접 투자를 촉진해 한·일간 분업 구조가 재편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

### □ 주요 산업별 효과

#### ○ 철강

- 일본의 덤핑 수출 축소와 對日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일본 및 세계 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됨. 또한 조선용 후판 등의 對日 수입 대체를 촉진
  - 다만 일본의 내수 부진과 세계 시장의 공급 과잉 상태 지속으로 확대 규모는 소폭
- 엔고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업체의 감산 및 일부 설비의 스크랩으로 세계 시장 여건의 전반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음

---

## ○ 석유화학

- 일본과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생산 품목은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어 엔고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일본 업체는 범용 제품의 동남아 현지화를 이미 상당히 추진하여 정밀화학 등 고급품 및 특수제품에 특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환율 변화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SM, TPA 등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 제품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 반도체

- 모든 업체가 가격수용자인 시장의 특성상 일본 업체의 가격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지 일본 업체의 수익성만 더욱 악화.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에 그침
  - 다만 우리 반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對日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
  - 장기적으로 엔고가 지속될 경우는 일본 업체의 감산과 퇴출을 촉진해 우리 업체의 세계 시장 주도력이 강화되는 효과 기대
- 채산성에 있어서는 원재료의 對日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원가 비중이 낮아 큰 타격은 없고, 장비의 경우는 차세대 라인의 투자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 공작기계

- 엔고가 지속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자 일본과 경쟁적인 제품인 NC 선반과 머시닝센터의 수출 여건이 호전될 것임
  - 내수 침체하에 수출을 강화하려는 일본 업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일본 업체가 수출보다는 부품의 해외 조달이나 직접 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부품 수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구조조정중인 우리 업계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도 있음
- 그러나 NC 선반과 머시닝센터와 같은 범용 제품을 제외한 非범용 제품은 구조적으로 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입액은 증대될 것이며,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채산성이 악화될 것임

## ○ 자동차

-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 업체의 공격적인 수출가격 인하 전략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임

- 수출용 자동차의 경우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아 엔고로 인한 원가 상승 압박은 거의 없을 것임.

○ 조선

- 對日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 인도 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 기대
- 이미 수주한 물량의 납품이므로 수출이나 생산은 거의 영향이 없음. 일본산 후판의 수입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 요인이 있지만, 원가 비중이 비교적 작고 수입대체의 여력도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임

< 엔고의 산업별 파급 효과 >

	수출 증대	원가 부담 상승	장기적 산업구조 개편 영향
철강	↑	⇨	일본 업체의 감산 및 일부 설비 스크랩
석유화학	⇨	⇨	정밀화학 분야 對日 수입대체 여건 호전
반도체	⇨	⇨	일본 업체의 감산 및 퇴출(장기)
공작기계	↑	↑	對日 부품 수출 및 외자 유치 여건 호전
자동차	↑	⇨	부품산업의 일본계 외자 유치 여건 호전
조선	↑(수주)	⇨	선박용 엔진 등 對日 수출 확대